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6월 6일 수요일 제752호



제3차 정기이사회 / June 5, 2018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센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단오

매년 음력 5월 5일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端午)'로 올해는 6월 18일이 단오날이다. 일년 중 양기가 가장 극성한 날로 알려진 단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축제로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

단오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5월의 첫 번째 5일을 의미한다. 고대에는 홀수를 음양 중 양(陽)이라 칭했고 5가 두 번 겹친 단오는 일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큰 명절에 속했다. 단오가 열리는 계절은 모내기 끝난 이후 1년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천의식과 연관이 있다.

단오날의 대표적 풍습은 뽕나무껍데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다. 창포물을 끓인 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 그 해 여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실제 창포는 혈액순환 촉진과 노화방지는 물론 세정효과까지 볼 수 있는 정유(精油)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인들의 목욕에 주로 사용됐다.

수리취떡을 먹는 것도 우리나라 단오 풍습 중 하나다. 수리취는 산나물의 왕으로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한데 피로를 개선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비타민C 및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다.

앵두화채 또한 단오에 즐겨먹던 음식이다. 6월 제철음식으로 알려진 앵두는 피로 회복에 좋은 사과산과 포도당, 과당이 풍부하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요즘 기력을 보충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땀이 많이 나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도 효능이 좋다. 온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민가에서는 앵두를 씻어 씨를 뺀 후 설탕에 재워뒀다가 오미자 국물에 넣고 잣을 띄워 먹었다고 한다.



C O N T E N T S

협회 웨스트몰 시대 예감 | 04 ~ 06

위터루 지구협회 골프 대회 | 07

피터보로 지구협회 골프 대회

더그 포드, "편의점에도 슬판대 허용할 터" | 08 ~ 09, 11

Saint Jimmy's 커피 관련 공지사항 | 10

국내 업계 주요 동정 | 12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 대회 | 13

킹스톤 지구협회 골프 대회

14 ~ 17 | 차세대 제품 권력형 전자담배의 시장성
JTI 담배값 인상

18 ~ 19 | 죽은 가게가 마을회관처럼 복직복직

20 | 미국, 자영업계 고용 위축 우려

21 | Sunny의 건강 이야기(12) : 암(癌) - 6

22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3 | Directory

“조합 건물을 사라” 이사회 압도적 지지 협회 웨스트몰 시대 예감

였다. 오는 8월 중순까지는 모바일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아 사실 조합 매장 운영의 공백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협회 신재균 회장과 조합 신영하 운영이사장 사이에 모종의 조율과 타협이 이뤄지면서 조합 건물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타협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물론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로 올려놓기는 수개월 전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이 선택에 이른 것은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경으로 짐쳐진다. 이때까지도 몇군데 후보지 건물을 실시하는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 건물 인수 의향을 지난 6월 5일(화) 열린 제 3차 정기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회의 최대 안건은 신규 건물 매입 현황 보고였다. 그동안 신규 건물매입추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추진해온 건물 매입 실사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할 안건이었는데 짧은 경과 보고 끝에 조합 소유의 현 웨스트몰 건물도 대안의 하나이며 인수 의사가 있으니 이사들이 심의 의결해달라고 신 회장이 이사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가벼운 충격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사들은 반기는 반응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조합 매장 일원화 운운하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 회원수는 매년 줄어 들고 있고 연령층도 고령화되면서 이에 비례한 도매상 규모도 하나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장시간의 토의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모두 3가지 안을 놓고 벌인 투표였다. 첫번째 안은 만족스러운 매물이 나올 때까지 건물 매입은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바일 건물 철수 시점이 오는 8월 12일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시간을 여유있게 가지며 마땅한 후보 건물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 모바일 영업의 잠정적 중단 사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 안이 바로 신 회장이 내놓은 깜짝 카드 '웨스트몰 건물 매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안은 가장 최근까지 입질을 해왔던 스틸스/킬 남동쪽 페트롤리아 소재 건물 오피 추진이었다. 이 건물은 노스욕에 소재하며 과거 오피스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1001 Petrolia Rd, North York)



▲ 조합 건물 매입에 대한 신재균 회장의 발표에 이어 신영하 조합 운영이사장이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두 신씨 사이에 최근 톡큰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회 소유의 신규건물 매입 후보지가 협동조합 소유의 현 웨스트몰 건물로 유력하게 떠올랐다. 작년 12월 법적으로 협회 소유 모바일 건물이 매각됨과 동시에 신규 건물 물색에 들어간 협회는 최근까지 스카보로와 노스욕을 중심으로 적당한 후보지를 실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 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oongchanoh@gmail.com

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회원들에게 그다지 호응을 얻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3개의 안을 놓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26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사장은 의장 자격으로 투표 권 행사안함) 2인인 조합 소유 웨스트몰 건물 인수에 23명의 이사가 찬성표를 던졌다. 예상은 했지만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결과에 대해 이사 스스로들 놀라는 눈치였다. 1안은 2명, 3안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 토의 중에 나온 발언들에서 느꼈던 공감대가 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과되자 이를 발표한 이성호 이사장이 의사봉을 힘있게 세번 내리쳤고 장내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협회가 조합 건물을 인수하면 두 조직 각각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협회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다. 사실 조합 영업에 차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때문에 서둘러 8월이 되기 한참 이전에 건물을 구하고 조합 매장 이전 준비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이었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속을 태우던 처지라 크게 마음의 안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절약한다. 연초 감정 재평가에서 650만 달러가 나왔으니 이를 기준으로 2%를 계산하면 복비가 최소 12만 달러 굳는다. 또한 매입 대금 자체도 매우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여지도 있다. 부동산 끼고 밀고 당기는 오피 싸움하는 신경전도 불필요하고 적정선에서 조합과 타협해 적정 대금으로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도 없다.

조합은 협회보다 더 장점이 많다. 우선 650만 달러에 매각된다고 가정

하면 은행빚을 다 갚고도 약 350만 달러 여유자금이 생긴다. 금융비용(이자)으로 매년 나가는 25만 달러를 절약하니 굳이 큰 이자 물고 자금 경색에 허덕거리며 건물 안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오래전부터의 공론에도 부합하는 셈이다. 4년만 지나면 은행에 이자로 100만 달러가 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감이 난다.

여기다가 이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이득이다. 협회가 제 3의 장소에 건물을 매입하면 모바일에서 그곳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내부 장치, 설비 구입, 인테리어 등)이 조합측 추산으로 90 여만 달러, 협회 추산으로 최소 50만 달러인데 이 돈이 또 고스란히 굳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무실 이전이 불필요하며 협회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 과거 오승진 전임회장때 추진하던 협회 조합 통합의 실질적 모양새까지 갖추며 보이지 않는 소소한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명실공히 협회와 조합의 공동체 정신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조합은 기밀 곳이 든든하다. 임대료만 보더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세놓으며 비싼 임대료 안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단기 자금경색때문에 한두달 임대료 못냈다고 쫓겨날 일이 없다. 물론 이런 상황은 결코 벌어지지 않지만 가상을 해보면 그런 융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조합은 앞으로 금융 비용도 안들고 오히려 여유자금을 가지고 조합원을 위한 경쟁력있는 가격의 물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조합 건물 매입 결단의 근본적 배경은 조합 살리기 더 나아가 조합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조합은 향후 동부지역 회원 쇼핑 편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조합으로 넘어갔다. 조합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조합 건물을 협회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두 조직 모두가 누릴 장점을 고려한다면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 보인다. 조합원에 유리한 가격의 쇼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으뜸 과제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를 실현할 최상의 방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6월 5일 이사회에서는 조합 건물 인수 결의뿐 아니라 조합과 관련한 또 다른 두가지 중요한 의제도 결의해 여러 면에서 의미깊은 이사회였다. 조합원 확충을 위해 보통주를 비가입 회원들에게 사주자는 것이다. 과거 실험과 조합이 큰 갈등을 빚던 빠이픈 시절의 유산이 현재의 100달러 보통주 제도인데 이를 지난날처럼 1달러 보통주 시대로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 액면가를 조정하지는 이야기는 수년간 흘러 나왔다. 1달러 시대로 되돌리지는 안은 이사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설왕설래 끝에 30달러로 정했고 조합원이 아닌 회원들에게 협회가 이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26명의 거수 표결 결과 25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협회는 조합과 의논해 보통주는 30달러로 한다는 조합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관 개정은 조합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다.

현재 조합 정관에는 보통주가 100달러이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주를 1주 이상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우선주도 1주 당 100달러이다.) 그런데 신영하 조합 운영이사장에 따르면 조합 내부적으로는 운영 이사회에서 이미 보통주를 1달러로 한다고 정했고 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고 한다.

세번째안은 조합 단기운영자금 지원 방안이었다. 현재 조합은 신용 한도대출(line of credit)이 183만 달러로 정해져 있고 대략 15만 달러 전후해서 여유 한도를 남기고 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15만 달러 여유 한도는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늘 자금경색의 스트레스를 안고 영업을 하게 된다. 행여 벌어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매의 융통성과 유리함을 보장하려면 한도대출의 여유폭이 지금보다 더 커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해주자고 협회가 나서는 것인데 신재균 회장은 25만 달러를 협회가 조합에 한도대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실무선에서 검토할 과제이지만 협회가 조합에 25만 달러 범위내에서 언제라도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여러모로 협회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건물을 협회에 팔며 많은 장점을 누리게 된 것에 더해 25만 달러 단기 운영자금 혜택까지 얻는 등 신영하 운영이사장과 조합 직원들 모두가 큰 위안을 찾았다. 이 제안 역시 26명 이사 중 25명이 찬성, 1명 반대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물론 꼬리표는 달았다. 여유 자금이 확보됐다고 긴장감이 해이해져서는 안되며 알뜰 경영하라는 이사들의 격려성 다그침이었다.

기타 토의 시간에 신 회장은 현재 두명의 부회장 중 한명이 사표를 내 켤 석인데 조만간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 부회장 2인 제도를 1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 주관 골프토너먼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올해 대회는 7월 24일(화) 글렌이글 골프클럽(Glen Eagle Golf Club)에서 열린다. 또 종래와 달리 베스트볼이 아니라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방식 이어서 긴장과 흥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원원으로 승용차도 등장한다. 참가비는 회원 60달러, 비회원 100달러이며 점심, 저녁식사에 전동

카트가 포함된다. 신청 마감은 7월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구협회장들은 참가 회원들을 파악해 선수조(챔피언조)와 일반조로 구분해 명단을 협회에 이날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년 골프장은 27홀이며 최대 수용 인원은 216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골프대회 관련 사항은 416-789-7891 사업개발팀으로 문의)

2시에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 30분 앞선 1시 30분에 상벌분과위원회 모임이 있었다. 레디고가입으로 제명 및 탈퇴한 2명의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 회복 심의 의결건으로 분과위원 7명 전원 모임이 모여 논의한 끝에 2명 모두 자격 복권을 결의했다. 두명의 회원은 이날 6월 5일부로 회원 자격이 회복되며 이를 고지하는 개별 서신이 갈 것이다. 결의 내용은 김학용 상벌분과 위원장이 기타토의 시간에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채로운 장면도 있었다. 사실 정치적 발언은 공식 협회 회의석상에서 듣기 힘들지만 오는 6월 7일 온주 총선과 관련해 여러 임원들이 소신성 발언을 쏟아냈던 것이다. 이성호 이사장은 회의 개최 인사말에서 은연 중 보수당의 주류판매 허용 공약을 चु켜세우며 당파를 떠나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 회장 역시 조성준 후보 지원에 관한 발언을 하며 에둘러 보수당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학용 상벌분과 위원장 역시 회원 신분 회복에 대한 의결사항을 발표하면서 발언 끝자락에 보수당을 위한 자신의 자원봉사 활약상을 소개했다. 이민자들의 만년 자유당 사랑이 식은 것은 협회 안팎의 여러 징후들과 여론을 보면 분명해 보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표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회의는 4시 30분에 끝났다.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교통위반 티켓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형법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가정법
- * 민사소송
- * 소액재판
- * 세권, 세입자 분쟁
- * 주류 판매법
- * 복권 판매법
- * 담배 판매법
- * 회사 설립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골프 대회 소식



워터루 지구협회 골프 대회

●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오니 오전 11시 30분까지는 행사장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Rebel Creek Golf Club**

1517 Snyder's Rd, Petersburg, ON
(TEL : 1-888-833-8787)

● **참가비 : \$100.00**

(점심, 저녁 및 카트 포함)

*푸짐한 선물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사항 : 519-588-7444

- 이메일 : bobkwon1010@hotmail.com

워터루 지구협회 회장 권순천

피터보로 지구협회 골프 대회

피터보로 지구협회 골프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당부하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7월 5일 (목)**

● **장소 : Black Diamond Golf Club**

705 Pontypool Rd., Pontypool ON
(TEL : 705-932-4653)

****참고사항**

- 경기진행은 샷건 방식이며 12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 참석 여부 및 참석자 현황을 6월 30일까지 통보바랍니다.

- 연락처 : 회장 홍성훈 705-652-6323

이메일 piaodaifu@hanmail.net

피터보로 지구협회 회장 홍성훈



고객이 원하는 고급 맞춤형 서비스

- POS(Debit) 수수료
 - Chip/Swipe : 3.65 cents / transaction
 - Taps : 5.65 cents / transaction
 - Rental Fee : \$30 / month
- CREDIT CARD
 - Visa, Master Card 수수료 1.55%
- NO STATEMENT FEE (무료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SIGNING BONUS : \$300
- NO CONTRACT
- DEBIT MACHINE 문제발생시
 - 한국어 문의(월-금) 9:00 AM ~ 5:00 PM(Tel,905-560-4511)
 - HELP DESK 운영 24/7 365 Days (Tel,1-888-263-1938)
 - 캐나다 전 지역 4-6 시간내 방문 교체(365 서비스)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Tel 1.888.554.7355 /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보수당 공약으로 격상

더그 포드 “편의점에도 술판매 허용할 터”



오는 6월 7일 온주 총선과 관련해 보수당 더그 포드 당수가 지난 5월 18일 편의점 비어 와인 판매 허용을 당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현재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식품점에만 한정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집권 자유당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요구에 기초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주류판매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하 포드 대표의 발언을 중간 중간에 인용하면서 당의 공약 발표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주 회사와 맺은 잘못된 계약을 철회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하에서 지역 특산 맥주를 더 많은 소매채널이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손님 대접을 위한 저녁 식사 거리 쇼핑하면서 같은 곳에서 와인도 한병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자기가 사는 동네 편의점에서 편하게 와인 한 상자를 사서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때가 조만간 올 것이다. 국민이 편해지는 일을 해야지 정부가 편해지는 일을 해서 안된다.”

“총선에서 우리당이 승리해 집권한다면 비어와 와인 판매를 온주내 전역의 편의점, 잡화점, 식품점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 변화할 시점이 무르익었고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온주도 주민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수당의 주류판매 정책은 판매처를 불문하고 비어스토어와 ICBO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타리오 주류사행업감독원(AGCO)의 관리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타 주의 사례는 법의 엄격한 집행하에서 주류 판매 채널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 보수당은 온주 소비자들을 존중하며 또한 역동적인 지

포드 당수에 따르면 집권 시 현재의 집권 자유당 정부가 외국 다국적 맥

협회 문의
(416)789-7891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SPECIAL \$4.99
Reg. \$5.99

4월 ~ 6월 스페셜

1390 Hopkins St., Whitby (905) 666-9395

역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또한 적극 지지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주류판매 현대화의 배경〉

- 주류 유통 시스템 개혁은 온타리오 주민의 숙원 과제다.
- 윈 수상과 집권 자유당 스스로도 온주 내 맥주 판매 시스템이 사실상(de facto) 독과점 체제하에 있으며 구태(status quo)를 종식하겠다고 언약했다. 그리고는 개혁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거의 한 것이 없다.
- 예를 들어 2017년에 자유당 정부는 해외 다국적 맥주회사들과 밀실 협약을 맺었고 이들 다국적 회사들이 온타리오 맥주 보급망인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를 장악하고 있다. 온주에서 유통되는 맥주의 72.5%가 바로 이 비어스토어 채널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 이같은 맥주 유통의 독과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내건 정책 변화가 450개 대형 식품점에 맥주와 와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편의점을 제외시킨 것이었다. 현재 370개의 식품점이 허가를 받아 맥주와 와인을 판매 중에 있다. 이는 매우 미온적인 정책이며 결코 유통 개선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 캐쓰린 윈 수상은 대형 식품점 그 이상의 채널로 주류 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편의점 등 소매업소 판매 허용은 이미 거부한 바 있다. 이유인 즉 주류 판매 수용태세가 안돼있다는 것이다.

〈보수당의 개선책〉

- 더그 포트가 이끄는 보수당 집권 시 정부의 규정이 아니라 시장 수급 현황에 근거해 비어와 와인을 편의점, 일반 식품점, 잡화점 등에서 판매토록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보수당은 자유당이 행한 맥주 유통 관련 다국적 맥주회사와의 밀실야합 계약을 철회할 것이다.
 - 주류 판매의 모든 추가되는 채널은 기존 비어스토어와 LCBO가 받고 있는 통제관리와 동일한 기준의 통제 관리를 AGCO로부터 받도록 할 것이다.
 - 이 정책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것이고 AGCO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즉시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실시될 것이다.
 - 보수당은 현재의 LCBO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민영 채널로 확대시킴으로 인해 공급망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LCBO는 계속 도매 기능을 이어갈 것이며 맥주와 와인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주류를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소매 채널 기능 또한 유지될 것이다.
 - 온타리오산 와인과 맥주는 추가되는 소매 채널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버타는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 ALGC(Alberta Liquor and Gaming Commission)에 따르면 현재 알버타 주내에서 구할 수 있는 독주, 와인, 맥주, 쿨러(*완제 칵테일), 사이더 등 모든 주류가 21,793종이라고 하는데 현재 온주는 LCBO에서 취급하는 주류가 13,618종에 불과하다. (*알버타는 정부와 민
- 〈11면에 계속〉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St.Jimmy 커피 관련 공/지/사/항

3년 계약 중간에 옵션 변경 불가능 유념해야



세인트 지미 커피(Saint Jimmy's Coffee)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동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도 아직 그랜드 오픈 날짜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기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업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 옵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옵션은 판매되는 한 잔 당 50센트를 받고 리스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옵션은 하루 10달러, 월 300 달러를 설비 리스 대여비로 회사측에 주고 대신 판매되는 한 잔 당 90센트 ~ 1.2 달러의 이익을 업주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루 약 20잔 이상을 판매할 예상치가 되지 않으면 50센트를 받는 첫째 옵션이 마음편하고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

니다. 그런데, 회원과의 개별 계약 체결 및 관련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는 회사측 일부 영업사원들이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우선 선택하고 3년 계약기간 도중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설명이 불분명하여 두가지 옵션 중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3년 기간 도중에 아무때라도 다른 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선택한 옵션은 3년 계약 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원들은 Pod 혹은 Capsule이라 부르는 커피재료를 훑쳐가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는 회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키오스크 설비 장치 내부에 매회 제조되는 커피 숫자를 세는 카운트 센서가 장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센서가 썬한 숫자 외의 판매 혹은 분실된 캡슐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설명에 의하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400개가 넘는 업소주인들이 이를 심각하게 불평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초코렛이나 캔디 등이 분실되거나 절도를 당하는 확률에 비해 일회용 커피 캡슐의 사고 횟수는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커피 캡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반 편의점 당과류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3년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년 계약을 하고 커피 비즈니스를 하던 중 마음이 바뀌었던 여하한 이유로 중도에 커피 사업을 중단하며 커피 설비를 철수하라고 하면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최소 \$2,500 달러의 위약금이 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업소 매매 혹은 폐업의 경우에는 협회와 회사간의 다소 해결의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의 계약위반 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이 커피 키오스크 설비는 업소내 수도관으로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큰 물통을 기기내 공간에 비치해두고 회사에서 설치해 주는 워터펌프와 연결시켜 커피에 필요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4갤론 큰 물통을 사서 이용하시고 이후 수도물을 받아서 채워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도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식이더라도 비용은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이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약 전에 협회 사업개발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16-789-7891)

(*영문계약서의 한글번역본도 협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본부협회 연락해 이메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Hyundai of Oakville

OKBA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최저가의 가격

Warranty 25% Discount

Sales Manager **Christine Jin**
C.416.931.9171

office : 905.845.7791(ex.229)
2500 South Service Rd. W. Oakville, On L6L 5M9

〈9면에 이어〉 **더그 포드, “편의점에도 술판매 허용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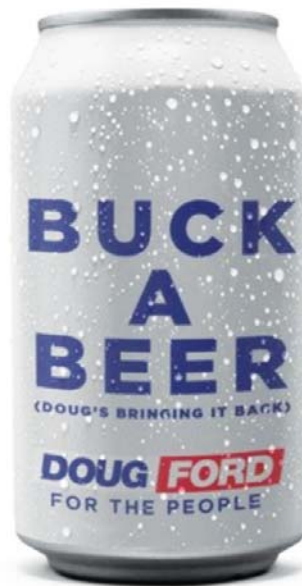
간 모두 취급하는 2원화 시스템임) 지역 중소 양조장이 번성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버커비어 시대 되찾기도 공약

이상으로 지난 5월 18일 더그 포드 대표의 입을 통해 발표된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관련 보수당 공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다. 포드 당수는 이같은 발표 후 10여일 가까이 지난 5월 26일에는 ‘버커비어’(Buck-A-Beer) 시대를 되찾아올 것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버커비어는 쉽게 말하면 맥주가격하한제를 일컫는 것인데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 하한선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온타리오 소비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맥주를 사 마시고 있다는 주장이다.

온타리오가 옛날에는 병 맥주 한 병당 1달러 이상으로만 묶어놓고 그 이상 얼마에 팔든 경쟁에 맡겼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즐겼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 시절 정책으로 되돌아가 현재의 맥주 병당 하한가를 1달러로 주저앉히겠다는 말이다.

포드 당수는 이 발표를 하며 “우리 보수당만이 유일하게 국민을 정



▲ 보수당 트위터 계정에 올린 맥주 저가 정책 공약 ‘버커비어’ 홍보 포스터 사진.

부보다 먼저 생각하며 소비자들을 대형 맥주회사보다 중시하는 정책을 가진 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하며 변화가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맥주 가격 하한선 제도를 과거로 돌리면 판매 채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로컬 맥주들이 편의점 맥주 허용정책과 맞물리며 판로를 찾게 되고 가격 경쟁력으로 대형 맥주 회사 브랜드와 맞설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활로를 찾게 해주는 순기능으로 확산된다. ■

OKBA

2018 OKBA GOLF TOURNAMENT
 참가 희망 회원은 소속 지구협회장에게 문의바랍니다.

JULY 24 (TUE)
GLEN EAGLE GOLF CLUB
 15731 REGIONAL ROAD 50, CALEDON, ON.L7E 3H9 TEL 905.880.0131

국내 업계 주요 동정

■ 지체부자유 운전자에 관한 앱



퓨얼서비스(fuelService)라는 앱이 영국의 한 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지체 부자유자들이 풀서비스 주유소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앱이다. 지체부자유 운전자들이 급히 주유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주변 가까운 곳 어디에서 풀 서비스를 하는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 요긴하고 편할 것으로 보인다. 30분 이내에 도착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도 해준다.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대기 시간까지도 친절히 알려준다고 한다.

■ 온타리오, 불법담배 의존도 높아질 듯



온타리오 흡연자들의 불법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 조사 기관 언스트앤영(Ernst and Young)이 밝

힌 3월 담뱃세 정책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실인데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정품 담배와 불법 담배의 가격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해서 오는 2019년 말이면 둘 사이의 카튼 당 가격 차이가 평균 78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데이터는 또 정품 담배 소비량이 올해 거의 11%가 줄어들고 내년 말이면 추가로 7%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 뉴브런즈윅 비상약 찾기 힘들어

뉴브런즈윅 편의점에서 애드빌이나 타이레놀을 구할 수 없다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올해 2월 17일 뉴브런즈윅 약사협회(College of Pharmacists)의 결정을 주정부가 받아들여 상당수의 의사처방 없이 구입가능했던 약품들이 선반에서 사라진 것이다. 타 주에서는 여전히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멀미약인 그라볼, 애드빌 콜드, 사이너스, 베나드릴 심지어 흔해빠진 타이레놀의 일부 시리즈도 구하지 못한다.



▲ 가정상비약을 이 편의점에서 못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20~30분 차량 이동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당시 편의점 업주들과 대서양편의점협회는 큰 유감과 분노를 표시했는데 도매상에서 무분별하게 편의점에 공급하는 가정상비약의 일부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돼 주민들의 보건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약사협회의 입장을 돌파할 수 없었다. ■

골프 대회 소식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 대회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골프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당부하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7월 10일 (화)**
 - **장소 : Royal Niagara Golf Club**
1 Niagara-on-the-Green Blvd, Niagara-on-the-Lake, ON
(TEL : 905-685-9501)
 - **참가비 : \$100.00**
- *참고사항
- 경기진행은 샷건 방식이며 1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 참석 여부를 6월 29일까지 통보바랍니다.
- 연락처 : 905-371-3539
이메일 niagarakba@gmail.com

나이아가라 지구협회 회장 김흥기

킹스톤 지구협회 골프 대회

킹스톤 지구협회가 2018년 골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 해주셔서 대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1:30 등록 시작**
*12:30 p.m 시간 엄수하여 샷건 시작
- **장소 : Barcovan Golf Club (www.barcovangolf.com)**
1412 County Rd. 64, Carrying Place, ON / Tel : (613) 475-2155
- **참가비 : 1인당 \$100**
- **참가 신청마감 : 6월 30일**
- **연락처 : 이강정 613-403-0142**
(이메일 : jkone1026@hotmail.com)
*미리조편성을 원하시면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알려주셔야 반영됩니다.
- **참가 대상 : 오픈**
- **경품, 후원금 환영합니다.**

킹스톤 지구협회 회장 이강정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6월 프로그램

<p>활기찬 노후 준비 시리즈</p> <p>■ 일시: 6월 5,12,19,26일, 7월3일 (화)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시니어 연금 2.시니어를 위한 정부지원 혜택 3.정부아파트 4.유언과 상속</p> <p>*선착순 30명 정함</p>	<p>엄마와 나</p> <p>■ 일시: 6월 6,13,20,27일 (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가정상담원 정유연 & 김진옥</p> <p>■ 내용: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엄마들과 예쁜 아이들의 모임 (0-4세) *놀이 프로그램과 장난감이 구비된 안전한 장소에서 엄마들이 잠시 쉬며 마음을 나누는 모임 *엄마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교류 시간</p> <p>*사전등록 필수</p>	<p>세이프 클럽</p> <p>■ 일시: 6월 7,4,21,28일 (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Yonge Centre Plus (10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3)</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정착 영어와 캐네디언 문화 배우기</p>	<p>캐나다 시민권 준비반</p> <p>■ 일시: 6월 9일 (토) 오전 10시 - 오후 4시</p> <p>■ 장소: KCWA 다운타운</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캐나다 정보, 사법 시스템 4.캐나다 상정, 경제, 지리</p> <p>*등록비 \$20</p>	<p>콘도 분양 및 구매의 모든것</p> <p>■ 일시: 6월 21일 (목) 오전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GTA 콘도 시장 현황 및 전망 2.콘도 분양 및 구매 과정의 모든 것 3.구매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4.질의응답</p>
<p>자동차 관리 노하우 10년을 새 차처럼 사용하기</p> <p>■ 일시: 6월 9,16, 23일,7월 7,14일 (토) 오후 4시 - 오후 6시</p> <p>■ 장소: CK Motors INC. (196 Drumlin Cir #2, Concord, ON L4K 3E5)</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연진 및 트랜스미션 점검 방법 2.차량 하부 점검 방법 3.브레이크 관리 및 점검 4.타이어와 휠얼라인먼트 배우기 5.기타 편의장치</p> <p>*10명정원, 등록비\$150</p>	<p>배우자 초청 이민 안내</p> <p>■ 일시: 6월 26일 (화) 오후 6시 - 오후 8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신청서와 구비서류 4.질의응답</p>	<p>대마초 합법화 현명하게 대처하기</p> <p>■ 일시: 6월 14일 (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KCWA 노스옥</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1.대마초에 대한 진실과 오해 2.대마의 의학적 효능 및 다른 용도 3.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마 이야기 4.대마 이용자 한국 방문시 유의 사항 5.질의 응답</p>	<p>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 일시: 6월 5,12,19,26일, 7월3일 (화) 오전10시 - 오후 12시</p> <p>■ 장소: Yonge Centre Plus (10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3)</p> <p>■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p> <p>■ 내용: 1.나는 행복한 엄마인가? 여성Talk 2.MBTI를 통한 나와 자녀의 소통기술 알기 3.불안하고 화나는 감정들보가-아이가 엄마에게 화내는 진짜이유 4.스마트폰과 컴퓨터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5.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되기</p>	
<p>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옥: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p>	<p>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6월 11일 (월) 오후 1시30분-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p>	<p>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6월 9일, 23일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Good Shepherd Centre</p>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대박 성공일까 一場春夢일까...

차세대 제품 퀄런형 전자담배의 시장성



차세대 전자담배로 최근 몇년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퀄런형 전자담배의 시장성을 놓고 메이저 담배회사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하고 맹렬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시장 경쟁에 너무 늦게 합류했다는 판단 하에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않은 모양이다. 지역 일간지 윈저 스타가 지난 5월 17일 자 특집기사로 이 주제를 놓고 탐사보도를 했다. 향후 편의점 채널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주제만큼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문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옮겨서 소개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의 캐나다 법인인 RBH를 통해 아이코스(IQOS), BAT의 캐나다 법인인 임페리얼을 통해 글로(Glo), JTI는 JTI맥도널드를 통해 플룸(Ploom)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막 시장 진입을 하고 마케팅에 들어간 상태다. 이하 전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지구촌 수백만 명의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는 가운데 메이저 담배 제조사들이 일반담배의 대체품 개발에 전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지않은가 싶다. 스타벅스와 케밥 가게 사이를 따라 토론토 다운타운 영선상의 소매업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 중 외관이 매우 매끈하고 은백색 컬러를 띤 한 업소 유리창에 이런 문구가 있다. “담배없는 미래 만들기”(inventing a smoke-free future). 내부를 들어가보면 마치 애플(Apple) 제품을 연상케 하는 신기한 제품들(gadget)이 깔끔스럽게 목재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다.

여성 점원이 묻는다. “담배 피우세요?” 그러면서 아이코스(IQOS)라는 이름의 상품을 보여주는데 전자담배처럼 보이며 길이가 집게손가락 보다 조금 크다. 그런데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를 뿜어내는 액상 대신 일반 담배와 같은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다.

점원이 설명한다.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위험을 감소시킨 제품이지요.” 설명을 하며 조그만 담배를 기구에 장착하고 330도의 열을 가해 흡연하는 모습을 시연해보인다. 이 정도의 열은 실제 연소시켜 피우는 일반 담배불 온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RBH의 아이코스 매장은 지난 3월 20일 협회 회원들도 방문해 직원들로부터 직접 설명과 시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갈하고 예술적 미니멀리즘(Minimalism)마저 느낄 정도의 이 업소는 고급 마스크라 관련 제품이나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노트북이라도 취급할 것 같은 분위기이지 담배를 취급하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명 퀄런형 전자담배와 흡연 도구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아이코스(IQOS)는 담배 공룡사인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 이하 PMI)가 개발 시판하는 제품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함에 따라 거대 담배회사들은 이들 고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건강과 혁신 기술이라는 두가지 개념에 몰두했다.

지난 수년간 회사들은 일명 ‘덜 유해한’(potentially reduced risk) 제품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기존의 전자담배(e-cigarette, vape 등)는 물론 열만 가하고 타지는(heat-not-burn)않는 아이코스과 같은 퀄런형 전자

담배에 이르기까지 '덜 유해한' 제품 만들기엔 힘을 쏟아 왔다.

이들 전체 전자담배 제품은 여전히 다국적 초대형 담배회사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반 담배보다 이들 차세대 담배 제품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앞으로 벌 것이라고 요란스럽다.

이런 대표적 회사들이 BAT(British American Tobacco)와 앞에 소개한 PMI등이다. 그리고 캐나다 시장에서 이 두 회사의 자회사 혹은 캐나다 법인이라고 할 담배 회사들이 RBH(Rothmans Benson & Hedges Inc.)와 임페리얼 토바코(Imperial Tobacco Canada Ltd)이다. 전자는 PMI의 캐나다 법인이고 후자는 BAT의 캐나다 법인이다. (*BAT는 영국의 다국적 담배 제조사이며 세계 1위 규모임)

RBH와 임페리얼은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라는 브랜드를 각각 차세대 담배 시장의 핵심 무기로 내세우며 캐나다 시장에서 이제 막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 시판에 돌입했고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다. 이 제품에 대해 연방은 이렇다 할 규제법령이 없는 상황이고 주정부 법령이라는 것은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형국이라 대형 회사들이 선뜻 이 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일반담배를 끊으려는 금연시장은 애매한 법망을 기꺼이 헤쳐나가겠다는 영세 전자담배 제조사와 소매업소들에 내맡겨진 꼴이다.

수개월 후면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초 연방정부가 Bill S-5를 통과시켰다. 연방 담배관리법을 개정한 법인데 보건부가 쫓겨온 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products)를 비롯한 전자담배를 관리 통제하는 기본 지침(시행령)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heat-not-burn tobacco products은 줄여서 HNB담배라고도 칭하는데 앞서 소개한 RBH의 아이코스, 임페리얼의 글로 등을 가리킨다.)

BAT그룹 개발담당 이사 데이빗 오릴리씨는 "전자담배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 우리는 캐나다로 진출할 것이며 현재 BAT 혹은 산하 캐나다 법인인 임페리얼이 차지하는 만큼의 시장을 전자 담배 분야에서도 차지할 것이다."

BAT의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는 영국 사우스햄턴에 소재한다. 이곳에 그의 사무실이 있는 오릴리씨는 자기 아래에 수백명의 기술자와 과학자를 두고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개발담당 이사이며 박사다. 그리고 이들 부하 직원들의 과반수가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 - 좀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말해 저 위험(reduced risk)제품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그의 책상위에는 여러 종류의 전자담배가 놓여 있다. 본인 역시 씹는 담배 스누스(snus)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이며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제품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오는 2020년이 되면 대략 지구상의 1억 인구가 차세대 담배(*전자 담배 등 일반담배가 아닌 제품)를 소비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관여하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차세대 담배는 우리 BAT규모의 30%를 차지할 것이며 2050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BAT의 베이퍼에 대한 투지는 이제 서서히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2017년에 BAT는 베이퍼 제품을 통해 거의 3억 파운드(*5.2

억 캐나다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 글로(Glo)로는 2억 파운드가 넘는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 제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거둔 실적이다. 일본은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HNB)시장이다. BAT는 일본에서 거둔 이 제품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 14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매출 목표는 10억 파운드로 잡고 있다. 2022년에는 이 제품을 비롯한 차세대 담배 제품으로 총 5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장미빛 매출 성장을 담보해줄 열쇠는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확신을 구축하는 일이다. 또 소비자들과 입법자들 모두가 독립 영세 제조사보다 대형 회사들이 개발하고 시험한 결과로 나온 제품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부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 담배의 금연을 위한 도움책으로 이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광고 환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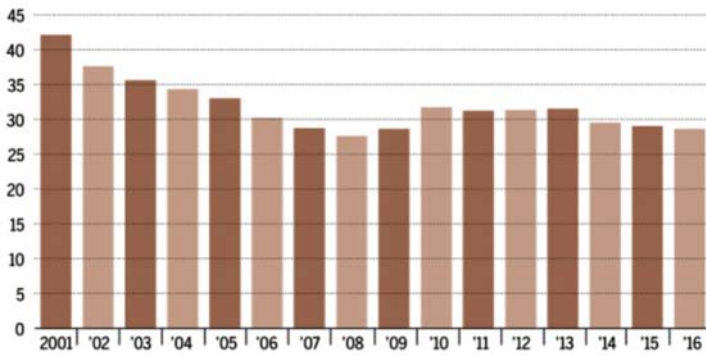
▲ BAT의 오릴리 박사와 실험 중인 전자 담배 테스트 설비

앞의 사우스햄턴에 있다는 BAT 연구센터를 한번 돌아보자. 건물 내에 많은 실험실 중 한 곳에는 복잡하게 얽힌 철사줄같은 것이 베이퍼 담배 밧데리에서 나와 가열기 모니터에 연결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베이퍼 담배는 폴란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개발 중인 제품이다. 기계는 전자담배를 매 33초마다 한번씩 흡입토록 작동하는데 흡입력은 사람의 들숨때를 모방한 강도로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때 시간 경과에 따라 밧데리가 과열되지는 않는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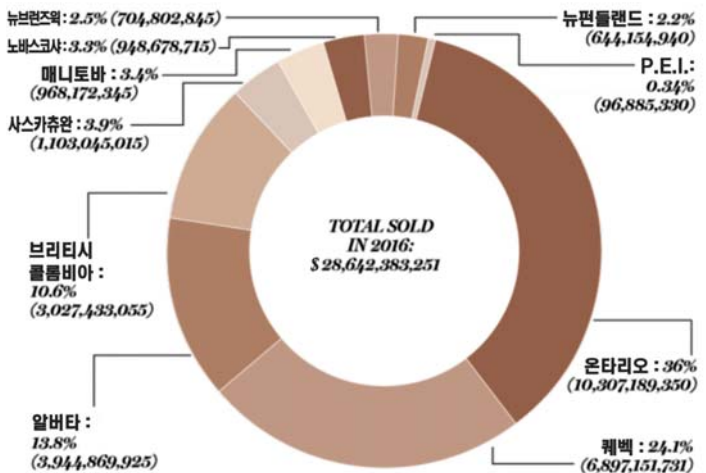
또다른 실험실로 가면 페트리 접시(petri dish)에서 배양되고 있는 인간의 폐와 동일한 인공 세포조직이 인공폐 장치를 통해 흡입되어지는 베이퍼 담배의 수증기에 노출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가 인체, 즉 폐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검증하기 위한 실험인데 실험실 가운데 입고 있는 관련 과학자 한 명이 임상병리적 테스트 결과를 세심히 살펴며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쫓겨온 쫓겨난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일반 담배보다 낫다는 사실이다."

〈2001 - 2016년 국내 일반담배 매출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16년 주별 일반담배 매출 구성비 및 매출액〉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놓고 자신있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담배 회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왜냐 하면 저위험을 증명함으로써 일반 전자담배든 궤련형 전자담배든 이 차세대 제품을 상용화 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실험과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까지 각국의 정부 반응은 승인과 거부가 혼재된 상태다.

예를 들어 미국을 보자. 필립모리스는 앞에 소개한 궤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스의 상용 출시 허가를 얻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자료와 함께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저위험 제품'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 요청이 지난 1월에 거부됐다. FDA 산하 과학검증단 - 이 조직은 FDA의 인허가 검토 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 - 은 아이코스가 질병을 덜 유발한다는 확고한 증명을 회사측이 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던 것이다. FDA측이 증거를 통해 밝힌 사유는 아이코스가 상당 정도로 일반 담배보다 해로움이 덜해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자담배보다는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보건당국이 궤련형 전자담배의 가열장치에 조사를 집중하는 것 같다. 이 조사의 대부분은 업계에서 지원한 돈으로 수행된다. 영

국보건성(PHE; Public Health England)은 놀랍게도 전자담배 이용을 권장하는 입장인데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성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궤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는 덜 위험하고 일반 전자담배보다는 더 위험해 보인다. 살펴본 20가지 연구보고서 중 12개는 제조 회사측이 돈을 대고 수행된 연구 결과물이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보기 어렵다." 대략 미국 FDA와 유사한 입장으로 보인다.

담배 회사들의 선의와 과학적 접근의 노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매우 강하다. 영국왕립의사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가 표현한 대로 "담배 회사들이 영국 내에서는 저위험 제품이라고 마케팅을 하며 '선'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흡연 자체를 부추기고 담배 통제 활동을 방해 저지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 행태때문이다.(There is no firewall between a 'good' tobacco industry... and a 'bad' one...)

궤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일반 전자담배(e-cigarettes)는 공중보건 주창자들에게 그나마 말이 먹히는 다소 수월한 입장을 가진다.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가 궤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영국보건성은 "전자담배의 암 유발 가능성은 일반 담배로 인한 암 유발 가능성보다 위험이 0.5% 낮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열심히 권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전자담배 제품들과 이를 둘러싼 건강 관련 주장들이 논쟁의 뜨거운 주제로 부각돼 있다. 연방정부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궤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품군으로 취급하지만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접근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비록 라이프 스타일 운운하는 제품 광고는 금지하면서도 상대적 저위험에 관한 홍보글에 대해서는 일정 통제하에서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주정부 차원으로 오면 이야기가 다소 달라진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품목군으로 다루며 그래서 광고나 홍보 메시지는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전국암협회(CCS; Canadian Cancer Society) 선임 정책분석관 랍 커닝햄씨는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전자담배로 바꾸고 있다."며 제조사들의 '저위험 제품' 운운하는 마케팅을 그냥 장사하기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그러나 약물사용조사연구소(CISUR)의 임원이자 빅토리아 대학 교수인 팀 스타켈씨는 정반대의 입장이며 대체담배(전자 담배 등)는 널리 마케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다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설사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죽을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이다."라고 광고금지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정부는 담배회사로 하여금 가격정책의 큰 재량권을 허용하고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을 크게 높여 일반 담배의 소비자 접근을 어렵게 하는 대신 대체 담배 개발에 회사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재정적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담배갑 포장 통일화 정책과 함께 일반 담배에 대한 고세율 정책은 공중 보건을 위한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은 담배회사로 하여금 큰 우려를 낳게 하지만 반면 차세대 담배에 대해서는 저세율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하나의 위안이자 보상책이 될 수 있겠다. BAT의 오렐리 박사는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에 장착하는 미니 담배는 개비 당 일반 담배에 비해 마진도 더 높다고 말했는데 이유인즉 이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차세대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놓고 메이저 담배 3사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시장성에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위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RBH의 아이코스, 임페리얼의 글로, JTI의 플룸)

그러나 우리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과연 공룡 담배회사들이 차세대 제품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험 마켓이었으며 초기에 아이코스와 글로가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 일본은 니코틴 함유 배이프 제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 이렇게 니코틴 함유 배이프 유통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최근 매출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4월 어느날 하루만에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날은 회사 CEO가 분기가 거듭되며 아이코스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던 날인데 발표가 있는 직후 저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여타 담배 회사 주식들도 유사한 처지였는데 차세대 담배군의 형편없는 실적으로 시장이 매우 불안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상업적 전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 차세대 제품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성이 있느냐를 놓고 논의는 별로 없다. 하지만 기존 전자담배 회사들로부터 대형 담배 회사들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느냐는 주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트렌드에 대해 집중 연구해온 워터루 대학 사회학 박사 쿼드 신청자인 애밀리아 하워드씨는 이렇게 말한다. “메이저 담배회사들이 차세대 담배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 여부는 편의점이 이들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주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베이핑 회사들이 현재 유사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들 제품이 출시되면 편의점 채널에 진출할 것이다. 결국 편의점 선반 진열 공간에서 신제품을 놓고 양

측의 제품들이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은 대형 담배회사들에게는 불리한 여건이다.

하워드씨의 생각은 전국베이핑협회(Canadian Vaping Association) 홍보담당 이사인 보리스 길러씨의 현장감각에서 나온 견해도도 뒷받침된다. 길러씨는 180스모크베이프스토어(180 Smoke Vape Store)라는 체인 전자담배전문업소를 15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업소는 대부분 광역토론토에 소재한다. 그의 견해를 들어보자. “많은 제조사들이 거의 몇 달 간격으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면 대형 담배 회사들은 신제품 개발 주기가 2~3년씩 간다.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인데 대형 회사들은 여타 중소 회사들에 비해 시장 변화에 그리 신속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시장 진입의 벽에 부딪칠 때까지는 이들 대형 회사들도 많은 투자를 하기는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 상당 정도 향후 정부의 법과 정책이 어떤 모습이나에 달려 있는 문제이겠지만 - 대형 담배회사들은 그 유구한 역사에서 참으로 요상한 형국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새로운 대체 담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 중역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 신제품은 대안 강구의 일환(part of the solution)이라고 말할 것이다.

PMI의 캐나다 디비전(RBH) 상무이사 피터 루옹고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비록 기존의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우리들의 경쟁상대이든 말았든, 또한 향후에 여하한 경쟁 상대들이 등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은 일반 담배에서 이들 신제품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신제품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뒤쳐져 있기보다는 변화의 선두에 자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JTI 담배값 인상

JTI가 6월 4일부터 일반 담배 주요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대부분 카튼 당 2달러 인상됐고 Camel North가 유일하게 4달러나 인상됐다. 그러나 Macdonald Special 시리즈는 오히려 카튼 당 1.25달러가 인하됐다. ■

브랜드명 (변종 모두 포함)	인상액 (카튼당)
Camel, Winston, More International, American Spirit, Export A', Vantage, Macdonald Select, LD	\$2.00
Macdonald Special Macdonald Special Superslims Macdonald Special Charcoal	-\$1.25
Camel North	\$4.00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 재확인 사례

죽은 가게가 마을회관처럼 복적복적



▲ 어둡침침한 소굴같던 가게가 조명 교체부터 업소 안팎의 환경미화로 거듭난 후 마을회관을 방불케하는 복적이는 가게로 바뀌었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주요 도시인 미네아폴리스에 '36린 리퓨얼스테이션(36 Lyn Refuel Station)'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 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편의점일 뿐이다. 주유소가 딸려 있고 담배, 음료, 스낵류들을 판매하는 어느 편의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저그런 편의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더 유심히 관찰해보면 큰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데 종업원과 손님에 대한 매우 자상한 배려다. 평범한듯 비범한 이 업소 이야기를 본 지면에서 소개한다. 성공의 요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자세라는 점에서 일 깨우는 바가 많은 스토리다.

주인 로니 맥쿼터씨가 현재의 이 업소를 인수한 것은 13년 전이다. 그가

가게를 살 당시의 모습은 처참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회생불능의 지경으로 한마디로 죽은 가게라고 보면 된다. 새 주인을 만난 가게는 이제 단순히 기름이나 넣는 주유소 편의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웰빙 음식까지 먹을 수 있고 마을 회관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놀라운 장소로 변했다.

맥쿼터씨는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봐야 할 대상을 종업원이라고 판단했다. “솔직히 말해 빨리 손쓰지 않으면 큰일날 지경에 처한 것이 종업원들이었고 근로 환경이었다.” 종업원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고 비즈니스 정책이라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선 이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일관된 영업 정책이라는 것을 주입했다.

그리고 대면하는 첫날부터 이들에게 시급을 3달러씩 올렸다. 시간 당 임금을 3달러나 올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대방하고 위험스러운 결단이었지만 새 주인의 마음은 확고했다. “가게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갖게 하는 조치이며 적극적으로 손님을 응대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솟구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의 윤리, 즉 근면이라는 문제다.”

일단 종업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자 그다음으로 착수한 것이 업소 환경미화였다. 유리창, 문짝 청소와 이런 저런 낡은 홍보물 부착된 것들은 다 뜯어내고 안팎으로 광이 나도록 닦고 흠쳤다.

재고 파악 작업도 다시 했고 상품기획에 대한 기본 틀을 짰다. 당시를 기억하며 맥쿼터씨는 이렇게 회상한다. “선반에 있는 물건이라고는 그저 그런 무미건조한 것들뿐이고 주민특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 상품기획이었다. 뭐랄까... 손님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오랜 물건들이 널부러져 있는 골동품가게라는 이미지였을 것이다. 발디딜 틈도 없이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고 널려있으니 무엇을 사고 싶었겠는가.”



▲ 주인과 종업원이 함께 행복하니 손님도 행복하다. (가운데가 이 글의 주인공 로니 맥쿼터)

재고 물갈이

다음으로는 재고 관리 다시말해 상품기획을 완전히 새롭게 가져가기 위해 손님 반응조사에 착수했다. 가게 내부와 외부도 말끔해졌겠다, 종업원들도 근무의욕이 생겼겠다, 이제는 손님의 마음을 잡는 일만 남았으니 일종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상하게 물어보고 확인시켰다. 어떤 손님들이 방문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상품기획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손님들

은 원하는데 정작 이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질문의 과정에서 그와 종업원은 손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했고 그들의 니즈 파악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손님이 원하는 것, 첫번째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캔이나 칩스가 아니라 무언가 신선한 것, 보다 충족적인 어떤 것들이었다.”

편의점 공간만 따지면 불과 800평방피트에 불과한 맥쿼터씨의 가게는 많은 것들로 알차게 채워져 있다. 크고 여유있는 공간이 아닌 만큼 모든 신선하고 새로운 먹거리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에 국한돼 있지만 손님들은 과거와 달리 큰 만족감을 느낀다. 회전그릴(roller grill)은 몇가지 더운 요리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고평차, 프로바이오틱 소세지, 유기농 요구르트 등 지역 특화 식품들이 쿨러와 선반을 채우고 있다. 지역 고유의 회사들이 신선한 패스트리 제품들을 매일 공급해준다. 주인 맥쿼터씨는 조만간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팔 계획이라 재료를 어떤 것으로 해서 특화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 중에 있다.

음료쪽은 커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역 회사와 제휴해서 원두커피를 공급받아 직접 갈아 흘려내려 신선함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요즘 인기를 모으는 콜드 커피의 일종인 빅와트커피(Big Watt Coffee) 두 종류와 카프치노 등을 완제품으로 함께 취급한다.



▲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된 지역 특화 캔 커피 ‘빅와트’

빅와트커피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2014년 5월 두 사람의 동업자가 이곳 미네아폴리스에 파이브 와트커피(Five Watt Coffee)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는 이듬해인 2015년 12월에 캔에 담은 더치 커피인 빅와트커피(Big Watt Coffee)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제조된 커피를 편의점과 같은 소매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생산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빅와트커피는 미네소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품이름들을 사용한다. 맛이나 풍미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미네소타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잘 살린 지역 특화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맥쿼터씨가 지역 고유의 생산물을 취급하는 것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사람사는 공간으로

주인이 중요시하는 비즈니스 원칙의 또다른 축은 ‘좋은 이웃’ 만들기다. “편의점은 한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때때로 편의점은 범죄의 소굴인양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 때도 있지만 손님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편의점이야말로 지역 사회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 만들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맥쿼터씨의 편의점에 관한 나름의 철학이다.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은 영업장 전체 환경 변화에까지 확대된다. 그의 업소 36린(36 Lyn)은 현재 8개의 주유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동차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설비도 한켠에 갖추고 있다. 그는 또 주유소와 편의점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조달을 위해 재생 에너지를 구입하기도 하는 환경 정책에 깨어있는 마인드의 소유자다. “사실 재래식 에너지보다 23~24% 더 소모되지만 지역 사회 전체의 청정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감수한다.”

그런가 하면 맥쿼터씨의 업소는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회원 40여 명의 주문 채소를 수령할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창 여름이면 농장에서 신선하게 자란 채소와 과일들이 출하되는데 이를 주문한 소비자들은 물건을 받을 공동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소비자들 집으로 배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공터나 장소에 물량이 집결하면 여기서 각자의 주문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장소로 맥쿼터씨의 편의점 유희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43명의 CSA 회원분들이 매주 한번씩 물건 픽업하러 우리 업소를 온다. 물론 온 김에 가게에 들러 쇼핑도 하니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나는 우리 가게가 편의점 이상의 공간으로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끼꺼이 이 서비스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밀착과 애정이 흠뻑 느껴지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지역공동체지원농업’이라는 개념은 원래 유럽-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태동한 것인데 미국으로 건너와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1개 농가 혹은 복수의 농가와 일정 수의 소비자들이 연간 배이스로 단체 계약을 맺어 원하는 채소나 과일을 신선하게 공급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농가에서는 전체 주문을 가늠해 연간 농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배를 해서 공급하고 서로가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한해 농사의 규모를 예견해 불필요한 투자나 노력이 들지 않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학비료를 쓰지않고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재배된 농산물을 연중 공급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서 좋은 것이다.

맥쿼터씨의 지역사회의 유대의 끈은 이밖에도 각종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예를 들어 사이클링 대회, 걷기 대회 등에 스폰서를 자임하고 나서 열심히 돕는다. 작년 여름에는 거리 축제 때 업소 지붕위에서 밴드 연주회도 열었다. 지역 행사에 동참한다는 차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소망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나는 내 가게 손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만족감을 안고 업소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나와 손님,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을 함께 간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입장에서는 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에는 합법적인 이민 관련 문서나 서류가 있는지 정도에서만 확인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더해 업주는 자신의 고용주가 미국 체류에 하자가 없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입증하는 책임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조사 권한이 부여된 관계로 ICE의 권한 집행 범위도 비례적으로 크게 넓어졌다. 직장 현장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격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주와 종사자를 체포할 수 있고 봉사활동 명령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불체자와 관련해 ICE가 과거에 비해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결정적 차이는 '잠재적' 불체자에서 갈린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불체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감시와 격리, 추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이고 바로 이 점때문에 ICE가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는 편의점과 같은 소자영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몇가지 통계를 더 살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 기준(10월 1일부터)으로 올 3월말 까지 7개월간 단속을 받은 업장은 거의 2,300여 곳이며 600여 명의 고용주가 체포됐다. 올 여름에는 추가 단속이 집중될 것이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5천 곳을 채우겠다고 한다. 업계가 준비상이 걸렸다.

연방 정부는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 대상을 세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A군, B군, C군으로 나뉘는데 불행하게도 편의점 업종은 고위험군(high risk)인 A군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불체자 고용 가능성의 높고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편의점 업종이 불법 체류자 고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했기 때문에 편의점 업소 단속은 ICE가 집중되는 업종이라는 말이다.

사실 캐나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의 하나일 정도로 불법인력 채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편의점 등 자영업 인력관리 요령에 대한 조언을 많이 쏟아낸다. 불법인력 고용은 임금 절약이라는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숙련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 편의점 고용인력 시장의 제약때문에 떨치기가 힘들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는 일터급습을 1만 5000군데로 획기적으로 늘려 불법고용을 봉쇄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편의점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적발사례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소규모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1인당 550 달러에서 대규모 반복 적발시에는 1인당 무려 2만 2000달러씩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형사범죄로 분류되면 체포기소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자영업계나 소위 말하는 노가다가 집중해있는 영세 하청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인력은 거대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대적인 일터급습과 불법고용 단속으로 인해 해고와 체포를 피한 잠적 인력이 늘어나면 관련 업계가 일손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매출감감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며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철퇴 결정적 한방 미국, 편의점업계 고용 위축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내에서 자주 직장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단속팀의 현장 급습이 있어 왔다.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18개에 걸쳐 약 100여 개 가까운 세븐 일레븐 매장이 현장 단속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체자 적발을 위한 이 단속과 관련해 이민관세국(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 최고 수장인 토마스 호먼 국장 대행은 “오늘의 단속은 불법 인력 고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 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해 매우 엄격할 것을 예고하며 들어선 정권으로 AP 통신에 따르면 추방 체포 건수가 정권이 바뀐 후 40%가 늘었다고 한다. 한편 이때의 단속으로 적발된 세븐일레븐 불체자 고용 인력은 21명이었으나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은 본사 차원에서 민첩하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이민 정책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법을 저지른 가맹점주와는 계약관계를 즉각 종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매업소들에 대한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의 단속이 우선적이며 이 과정에서 세금 포탈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처럼 ICE의 단속까지 가세해 불체자 단속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

Sunny의 건강 이야기(12)

이번호는 암의 주 원인인 스트레스를 살펴본다. 스트레스는 외적 요인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적인 갈등과 욕심, 자존감 상실에서 유발된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 혹은 결벽증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극심한 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실제로 신장기능 약화, 당뇨 그리고 필수영양소 부족에 따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같은 호르몬 결핍으로 자체 조절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우울증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 대사증후군의 마지막 결과 물이 암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암환자들 대부분이 초기 암으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Metastasis)가 주 원인이며 그 전이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외부 위협 요소들에 저항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아드레날린과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호르몬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으로 부신에서 분비된다. 부신은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화학 공장'이다.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 호르몬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흔히 이 코티졸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당분, 단백질의 대사를 조절하며 혈압 유지와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기능을 한다.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상적인 생리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각종 감염에 맞서 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필요한 경우 저장된 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는 기능도 한다. 섭취된 음식을 분해해서 당분을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촉진시키며 인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간에 저장된 당분과 지방산을 혈액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밖에도 정신적 안정을 유지해주고 염증과 알러지 반응을 조절한다.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신장에서 전해질(특히 나트륨) 분비를 억제해 혈압과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한마디로 스테로이드 코티졸은 만병 치료제 역할을 하고, 부신은 몸의 체온 조절을 하여 면역력을 유지시켜 암세포를 제거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중대한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신이 혹사되고 고갈돼 막상 다른 중대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다.

인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 정도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Acute stress), 만성 스트레스(chronic stress), 그리고 부신의 탈진 즉, 만성피로로 구분한다. 적당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 상승과 함께 땀이 많이 나며 불안과 예민 증상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생리적 변화는 당연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졸의 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DHEA의 양이 감소하며 과도한 코티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근육의 감소 및 지방

암(癌) - 6 : 스트레스와 암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뼈가 약해지고 인체의 여러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 체중 증가, 혈당의 불안정, 면역 기능 저하가 생기며 과식을 유발하는 동시에 인슐린의 양이 증가해 인체로 하여금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만성 피로가 장시간 지속되면 인체의 중요한 조직이 손상되어도 이 손상이 회복되는 능력이 감소되며 뼈와 근육 등 많은 신체조직들이 손상을 입고 암 세포 전이로 이어진다.

코티졸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문제지만 결핍도 문제다. 이 방면의 유명 학자인 도널드 안스박사는 스트레스를 이미 1908년에 암의 원인으로 규정지었고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림프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 암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증명했다. 암세포는 전형적으로 혈관 또는 림프계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확산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 두 가지 경로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아드레날린 역시 림프관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암 세포가 다른 신체 부위로 더 빨리 이동하도록 한다. 부신에서 생성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노로에피네프린 역시 암 성장을 증가시키고 종양 세포를 자극하고 생성물질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한편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암 전이와 확대를 돕는다.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은 특정 암세포,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의 사멸에 내성을 갖게 만든다.

이는 곧 감정적 스트레스가 암을 발전시키고 또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일은 암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가와 신앙 혹은 숨쉬기 운동 등으로 육체는 물론 감정 모두에서 정상상태로 신속하게 되돌아오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관점 전환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야 만성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암은 스트레스와 결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심이 부신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고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행복호르몬을 증가시켜주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긍정적 힘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혈당 수치를 높이는 단 음식은 피하고 충분히 수면하며 커피 같은 자극제를 줄여야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코아(다크 초코렛)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아몬드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베리류와 호두의 오메가 3 지방산도 좋다. 또한, 홍차나 녹차에 포함된 테아닌(Theanine) 성분은 스트레스 해소와 천연 신경안정제(Non-sedative relaxant)로 유명하다. 그런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차를 7-8잔을 꾸준히 마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 건강식품점에서 알약을 사서 꾸준히 섭취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스트레스 해소와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절대적 효과를 주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수퍼푸드도 강황(薑黃 Turmeric)이 있다. 울금(鬱金)이라고도 하는데 주요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은 암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무기다. (다음 호에는 행복호르몬 생성과 커큐민의 효과와 기능을 소개합니다.)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937 - 7637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71 - 3539
- **Waterloo**
회장 권순천 (519) 684 - 7444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KBA 온타리오 한인사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공지사항
실업뉴스
게시판
실업뉴스PDF 보기
KBA협동조합 소개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OKBA와 친구해요!
카키오텍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성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BRINGING YOUR IDEAS TO LIFE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416-880-9734



2018년
Nestle와 함께하세요!



2018.2.25-3.24



South Cove 취급업체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OKBA Exclusive Deal



www.saveourstores.ca

실업뉴스	공지사항	면회일정	주요기사
Convenience U & CARWACS (Toronto) ...	Nestle Ice Cream Exc. ...	2017/2018 회계연도 ...	18주(1) 공동회 ...
Weston Bakeries 배달서비스 ...	달걀 가격 인상 ...	2018년 2월 25일 ...	18주(2) ...
Merchandise ...	다들 물어봐 ...	2017/2018 회계연도 ...	18주(3) ...
... (more rows) (more rows) (more rows) (more rows) ...






합회소개 협회조직 / 협회정관 및 내규 / 회원가입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지구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대표전화 : (416) 789-7891 / 팩스번호 : (416) 789-7834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DIRECTORY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모바일지점 ----- (416) 285-9591
 1 Mobile Drive, Toronto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공급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공급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2018.5.20~2018.6.16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5월 20일부터 2018년 6월 16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Doritos XL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2/\$7

Cheetos XL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2/\$3

All Single Serve

Club Gold / Club Platinum / Club Diamond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